

# 魯迅小說의 精神分析學的 考察\*

尹榮根\*\*

## <목 차>

1. 序論
2. 욕구분출의 방어기제—현실타개와 위안
  - 1) 사회규범적 생활에서의 일탈
  - 2) 현실의 벽에 대한 절망과 수긍
3. 이항대립에 의한 방어기제—이상적 사회로의 회귀욕망
  - 1) 집착과 대리만족
  - 2) 회귀욕망
4. 結論

## 1. 序論

프로이트가 처음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이 말은 정신병 환자의 치료라는 영역을 넘어 문학작품 내지는 예술작품의 분석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환자의 심리 저변에 억압된 무의식 세계를 분석해 내고 그것을 언어로 표출함으로써 정신병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이 정신요법은 언어를 매개로 한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작자와 독자 간의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여 문학작품 분석, 즉 작자의 심리분석, 등장인물의 심리 분석은 물론 프로이트적 상징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적용되어 작품에 구현된 작자의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서일대학교 200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일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本稿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환경과 내면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 분석학적 측면에서 魯迅의 문학사상과 작품세계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은 병리적인 치료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생활과 정신분석학의 관계에서 기인”<sup>1)</sup>한 것인데,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을 통하여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 本稿에서는 작중인물을 병리학적 차원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평범한 인간들의 심리세계를 정신분석학적 방면에서 분석하려 한다.

문학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작품과 작가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작가가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은 작가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다시 한번 완화하기 위해 의도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예술행위는 환상의 과정과 유사하다. 현재의 강한 체험은 작가에게 어린 시절과 같은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는데, 이렇게 환기된 과거의 기억에서 풀려나온 소망충동은 마침내 예술을 통하여 충족을 얻게 된다. 예술은 환상과 마찬가지로 그 옛날 어린 시절의 놀이의 연장이면서 대체물이다.<sup>2)</sup> 魯迅에게 있어서 글쓰기 역시 작가의 기억에 의한 회상이며, 생활 속에서 체험한 인생문제가 작품 속에서 여러 방어기제들을 통하여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방어기제는 압도되는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프로이드는 “자아방어기제란 이드(id) 충동의 공개적 표현과, 이와 대립되는 초자아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sup>3)</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마음의 평정을 원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내적 혹은 외적인 영향으로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갈등으로 인한 불안에 처하게 된다. 이 때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평정시키는 기제로 ‘방어기제’가 이용된다.

자아는 불안을 처리하여 마음의 평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것이 곧 방어기제이다. 자아는 방어기제를 이용하여 불안을 피하고, 한편으로는 본능적 욕

1) 프로이드, 박성수·한승완 譯 〈과학과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개요》(서울: 열린책들, 2004), p. 193.

2) 프로이드, 장정진 譯 〈창조적 작가와 몽상〉, 《창조적 작가와 몽상》(서울: 열린책들, 1996), pp. 90-96 참조.

3) L.A.젤리·D.J.지글러, 이훈구 譯 《성격심리학》(서울: 법문사, 2003), p. 76.

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해소되고 평정이 회복된다. 이 과정에서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절충형성이 이루어진다.<sup>4)</sup>

자아가 어떤 방어기제를 주로 쓰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인간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아는 이러한 방어기제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작중인물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本稿는 魯迅을 정신분석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작품 속에 투영된 魯迅의 작품세계를 인물들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 밝혀두거니와 本稿는 魯迅의 문학을 정신분석학적 방면에서 분석하여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에서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예술가의 본능과 의식을 승화시켜 재창조해낸 또 하나의 작가세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최근 들어 수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sup>5)</sup> 만족할만한 정도에 이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정신분석 이론이 제공하는 여러 개념의 틀 속에 문학의 복잡한 현상을 무리하게 집어넣는 오류를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는 까닭은 魯迅의 문학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사상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기에 그의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 유형은 몰락한 구지식인, 반봉건 투쟁으로 인하여 당시 사회로부터 피해당하는 신지식인, 봉건사회의 억압과 봉건제도에 희생당하는 무지몽매한 농민 등으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작품 분석을 위한 텍스트로는 몰락한 구지

4)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3), p. 160 참조.

5) 정신분석학의 흐름은 물론 프로이드와 그 학파가 주류를 이루어 지속되어 왔지만 문학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의 이론이 다소 수정 보완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원형(Archetype) 이론에서 융의 심층심리학에 의하여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이 보완되기도 하였으며, 문학비평 내지는 철학적 영역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에 의하여 수정되기도 하였다.

식인의 대표적 인물인 孔乙己의 삶을 묘사한 〈孔乙己〉, 반봉건 투쟁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신지식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인 魏連殳의 삶을 다룬 〈孤獨者〉, 봉건사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농민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린 〈故鄉〉, 여성인물 중에서 구예교에 희생되는 전형적 농촌여성인 祥林嫂의 삶을 묘사한 〈祝福〉 등으로 한다.

## 2. 욕구분출의 방어기제 - 현실 타개와 위안

인간은 사회적 환경적 제반 요인으로 욕구의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마음속에서는 욕구와 금지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서 불안이 생기게 된다. 불안은 본능적 욕구에 대항하는 초자아의 위협이다. 이 때 자아는 불안을 처리하여 마음의 평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어기제이다. 자아는 방어기제를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불안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능적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의 욕구 사이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절충형성이 이루어진다.<sup>6)</sup> 방어기제의 절충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자아를 우리는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기제의 절충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어기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사용되면 정신적 결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 방어기제를 魯迅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6) 방어기제를 담당하는 자아기능은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지만 그 밖의 자아기능은 이러한 갈등 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스스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발전된 자아기능을 자아심리학자인 하트만은 '1차적 자율적 자아기능'이라고 하였고, 지각·의지·사물의 이해·사고·언어 및 기억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무석, 앞의 책, pp. 119-120 참조.」

## 1) 사회규범적 생활에서의 일탈

魯迅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농민이나 여성 등 소외 계층이 많다. 특히 여성인물 중에서 구사회와 구예교에 희생되는 전형적인 농촌여성으로 〈祝福〉의 祥林嫂가 있다.

〈祝福〉의 주인공 祥林嫂는 순박하면서도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전통적 봉건사회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중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여인이다. 그녀는 삶의 장애가 되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충돌로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갈등의 조절을 위한 억압<sup>7)</sup>과 투사(投射)<sup>8)</sup>, 반동형성<sup>9)</sup>의 방어기제가 나타나게 된다.

남편과 사별한 후 魯四영감의 집에서 식모로 일하던 祥林嫂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 의해서 강제로 賀老六과 재혼을 하게 된다. 재혼을 원치 않았던 祥林嫂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항하지만 결국 체념을 하고 힘세고 일 잘하는 賀老六의 아내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고 작은 행복에 안주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재혼한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도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자 그녀는 다시 魯四영감 댁으로 돌아와 식모 일을 한다. 그녀는 봉건예교에 어긋나는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 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게 된다. 게다가 강제 재혼에 대한 반항의 흔적인 이마의 상처를 두고 사람들이 조소를 보낼 때마다 그녀는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방법으로 대처한다. 재혼한 남편의 죽음, 자신의 실수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 주위 사람들의 경멸과 배척, 이러한 이중삼중의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이 일게 되지만 결국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된다.

7) 위협적인 충동이나 생각을 의식에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김유진, 《일상생활과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0) p. 212 참조.」

8)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을 자신에게 보다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유진, 위의 책, p. 212 참조.」

9) 반동형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 속의 욕구와 반대인 경우이다. 비의식의 바닥에 흐르는 생각, 소원, 충동이 받아들이기 두려운 것일 때 이와 정반대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떠오르는 것을 막는 과정이다.

祥林嫂의 갈등 원인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인간 본능의 분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날 祥林嫂는 柳媽에게 재가한 것에 대해 “빨리 죄값을 면하려면 土地廟에 가서 몸값으로 문지방을 바쳐야 한다”<sup>10)</sup>는 말에 그녀는 마을 서쪽의 土地廟로 가서 문지방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柳媽가 “자네가 저승에 가면 죽은 두 남편이 서로 차지하려 하고, 염라대왕이 톱으로 썰어 두 남편에게 나누어 줄 것”<sup>11)</sup>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억압 기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祥林嫂는 아들을 산짐승에게 잃은 것에 대해 자신의 바보 같은 행동을 후회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겹도록 이야기함으로써 동정을 구하고자 한다. 또 柳媽가 결국 두 번째 사내에게 재혼을 허락한 것에 대해 빈정대는 투로 묻자 賀老六이 힘이 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재혼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에게 불안을 주는 충동을 상대에게 돌리려는 投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sup>12)</sup>

그 웃는 모습이나 말하는 투로 자신이 놀림감이 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 그녀는 언제나 눈만 크게 뜬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루종일 입을 다물고 남들이 치욕의 낙인으로 생각하는 상처를 이마에 얹은 채 말없이 심부름과 청소, 채소 씻기, 쌀 씻기에 정성을 다하였다.<sup>13)</sup>

祥林嫂가 재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 억누르기 위해 일어나는 반동형성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의 사회적 규범으로 볼 때 과부가

10) 你到土地廟里去捐一條門檻，當作你的替身。「〈彷徨〉，《魯迅全集》，이하 全集이라 함》第2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3)，p. 19.」

11) 你將來到陰司去，那兩個死鬼的男人還要爭，你給了誰好呢？閻羅大王只好把你鋸開來，分給他們「위 10)과 같음.」

12) 투사되는 내용은 투사하고 있는 사람의 비의식에 존재하면서 그에게 불안을 주는 충동이나 욕구들이다. 이것이 사고의 형태로 투사되면 망상이 되고, 지각의 형태로 투사되면 환각이 된다. 망상이나 환각은 '비의식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다. 「이무석, 앞의 책, 170쪽 참조.」

13) 她大約從他們的笑容和聲調上，也知道是在嘲笑她，所以總是瞪着眼睛，不說一句話，後來連頭也不回了。她整日緊閉了嘴唇，頭上帶着大家以爲恥辱的記號的那傷痕，默默的跑街，掃地，洗菜，淘米。「《全集》，p. 20.」

재혼을 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祥林嫂로서는 것처럼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죄의식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魯四영감 댁으로 돌아와 더 열심히 일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이다.

祥林嫂의 재혼은 당시의 봉건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시어머니의 강압에 의한 재혼으로 처음에는 강하게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체념하고 자식까지 낳았다는 것은 도덕과 양심보다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약한 봉건여성의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본능과 양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재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賀老六의 억센 힘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투사의 기제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祥林嫂는 지난 일에 대한 죄의식이 되살아나고, 그러한 부끄러운 지난날을 억누르고자 魯四영감 댁으로 돌아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토지묘에 문지방을 기증하여 죽은 전 남편에게 속죄하겠다는 초자아가 형성된다. 이것은 반동형성이면서 또한 취소방어기제<sup>14)</sup>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祝福〉은 작자 魯迅이 吶喊의 시기에서 彷徨의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동, 그리고 사랑<sup>15)</sup>에 대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나

14) 취소방어기제란 자신의 욕구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느꼈을 때 그에게 준 피해를 취소하고 원상복귀 하려는 행동을 할 때 취소라고 한다. 속죄행위가 이 취소에 속한다. 「이무석, 앞의 책, 163쪽 참조.」

15) 에릭슨은 인생이 계속적인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 사회적 발달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고 사람은 일생동안 8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위기(갈등)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아상과 사회를 보는 관점의 영향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의 초석으로서 성실성은 사회적 습관, 윤리,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자각하고 이를 지키는 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한 문화의 종교적, 과학적, 정치적 사고를 반영하는 일련의 무의식적 가치와 전제이다. 이 시기에 이데올로기적 제도에 대한 신념의 결핍은 만연된 혼란과 사회규칙체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불신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주기에서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성인초기(20세~40세까지)는 친밀감 대 고립을 갖게 되는 시기로 앞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동기화된다. 6단계에 나타나는 친밀감이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느낌의 발달을 의미한다. 친구간이나 또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른 인류에 대한 관여이며 이 속에서 갈등의 건전한 해결을 위한 사랑이 발생된다. 사랑이란 자신을 타인에게 관여시키고 이 관여를 지키려는 능력으로 간주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 보호와 존경, 그리고 책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L.A.젤리·D.J.지글러, 위의 책, pp. 158—164 참조.」

타나는 삶을 담아내고 있다. 祥林嫂는 결국 잘못된 봉건사회와 봉건제도에 대항하여 죽음으로써 항거하였다. 이것은 작자 魯迅의 적극적인 태도라 할 수 있지만, 그녀가 죽기 전에 던진 질문에 대하여 '나'는 지식인이면서도 매사에 구속없이 자유롭다는 이유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한 것에서 작자의 심리상태가 彷徨의 단계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이것은 "祥林嫂의 불행에 대한 지식인인 '나'의 무력함을 자인하는 것이며 작품에는 어떠한 해결의 시도도 없는<sup>17)</sup> 것으로 보아 작자 자신이 모순된 사회적 현실에 철저히 대항하지 못하는 데 대한 회피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魯迅 자신은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신만의 구사회와 구제도의 병폐에 대한 저항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이 투사되어 있다. 이는 魯迅의 자존심에 의한 것이며 달리 말하자면 '吶喊'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현실의 벽에 대한 절망과 수긍

5.4 이후에도 위세가 꺾이지 않았던 봉건세력과 전통사상, 이념적 대립의 격화 등으로 혼란과 실의에 빠져있던 당시 지식인 계층이 정치와 경제적 위협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魯迅은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현실의 질곡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孤獨者〉를 텍스트로 하여 지식인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겪게 되는 갈등 속에서 어떤 방어진체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심리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孤獨者〉의 魏連受는 봉건세력과 투쟁하다 모함으로 해직당한 후에도 봉건세력과 사회에 굴복하지 않지만 결국 생계문제로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魏連受는 무의식에서 주로 억제<sup>18)</sup>, 전위<sup>19)</sup>, 지식화<sup>20)</sup> 등의 방어진체

16) 鄭文熙, 〈魯迅의 創作意識과 人物形象에 대한 研究〉(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2), p.64 참조.

17) 丸山昇 著, 韓武熙 譯, 《魯迅評傳》(서울: 일월서각, 1982), p. 163.



로 나타난다.

魏連歿은 동물학을 전공했음에도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 그는 게으르면 서도 남의 일을 잘 돌봐주고 가정은 파괴해야 한다면서도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할머니에게 송금을 하는 당시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해외 유학과로 자신의 소신을 펼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이듬해 봄에 교장으로부터 강제 해고를 당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갈등이 일어난다.

그는 책을 좋아했지만 장서가는 아니었다. 이 정도의 판본이라도 그로서는 귀중한 책으로서 어지간한 형편이 아니고는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불과 2,3개월 실직상태인데 이토록 곤란하다는 말인가? 물론 돈이 생기면 곧 써버리는 성격이어서 제대로 저축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다, 連歿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근처에서 소주 한 병과 땅콩 두 봉지, 어포 두 개를 샀다.<sup>21)</sup>

魏連歿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자신이 아끼던 장서를 팔아 생활비로 충당하는 등, 그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었고 또 여러번 당해본 적이 있으므로 신기할 것도 없고 이야기할 건덕지도 못되는 것”<sup>22)</sup>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로 평소와 다름없이 사회와 역사

18) 억제(suppression)란 의식적으로, 혹은 반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방어기제를 말한다. 「이무석, 앞의 책, 163쪽 참조.」

19) 본능적 충동의 표현을 재조정해서 그것이 위협을 많이 주는 사람이나 대상에서 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교수에게 꾸중을 들은 학생은 대신 같은 방 동료에게 화를 낸다. 「L.A.젤리·D.J.지글러, 앞의 책, p. 78.」

20) 지식화(intellectualization)는 감정과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대신에 그것들에 대한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이다. 요모조모로 생각은 많이 하고, 대신 그 생각에 붙은 감정은 살짝 빼버림으로써 용납하지 못할 충동에서 비롯한 불안을 막는 방어기제이다. 「이무석, 앞의 책, p. 187 참조.」

21) 他喜歡書，但不是藏書家，這種本子，在他是算作貴重的善本，非萬不得已，不肯輕易變賣的，難道他失業剛才兩三月，就一貧至此嗎？雖然他向來一有錢即隨手散去，沒有什麼貯蓄，於是我便決意訪問連歿去，順便在街上買了一瓶燒酒，兩包花生米，兩個鰻魚頭，「《全集》第2卷，p. 94.」

22) 這是意料中的事，也是自己時常遇到的事，無足怪，而且無可談的。 「위의 책, p. 95.」

에 대한 자기주장을 펼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이 편치 못하면 정말, 남까지도 불쾌하게 만들거든. 겨울 공원에는 가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최악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듯 ‘억압’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억압해 버렸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 무렵 그는 이미 궁핍이 극에 달하여 궁상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으며, 여유 있던 전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밤중에 찾아온 그는 잠시 머뭇거리던 끝에 더듬더듬 말하였다. “그곳에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筆耕이라도 좀, 한 달에 2~30원이라도 좋겠는데, 난……(중략)……난…조금 더 살아야 하겠어…”<sup>23)</sup>

魏連受的 평상시 여유있던 모습은 현실의 패배와 생활에 대한 절박함에 의해 본능적으로 자존심을 버린 채 머뭇거리고 더듬더듬거리는 모습의 ‘신체화’<sup>24)</sup>로 나타난 것이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헤쳐나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당당했던 魏連受를 이처럼 비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버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회에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사단장의 고문이 된다.

위대인은 운이 돌아온 후로는 인품이 사뭇 달라져서 고개도 번듯이 들고 가슴을 펴고 다니셨지요. 남 앞에 나서서도 옛날같이 무뚝뚝하지 않으셨지요. 아시 다시피 전에는 말수도 적었고, …(중략)…仙居衛이란 비싼 약을 선물 받고도 본인은 드시지 않고 바로 이곳 마당에 휙 던지시며 ‘할멈, 당신이나 먹지’라고 하셨어요.<sup>25)</sup>

23) 他那時生計更其堪了, 窮相時時顯露, 看去似乎已沒有往時的深沈, 知道我就要動身, 深夜來訪, 遲疑了許久, 才吞吞吐吐地說道: 不知道那邊可有法子想? 便是鈔寫, 一月二三十塊錢的也可以的。我…(中略)…我……, 我還得活几天……。「위의 책, p. 99.」

24)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수의근육 외의 신체 증세로 표출된다. 「이무석, 앞의 책, p. 190.」

25) 你可知道魏大人自從交運之後, 人就和先前兩樣了, 臉也抬高起來, 氣昂昂的。對人也不再先前那麼迂。你知道, 他先前不是像一個啞子…(中略)…人送他仙居衛, 他自己是不吃的, 就擲在院子裡, 就是這地方, 叫道, ‘老家伙, 你吃去罷。」「위의 책, p. 105.」

魏連歿의 현실의 패배에 대한 본능적 분노는 이처럼 태도를 돌변시키는 것으로 현실의 일을 부정하고 잊어버리려는 '억제'로 나타난 것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현재의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당한 굴욕에 대해 앙갚음하고 싶다는 본능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고집으로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자신이 증오했고 반대했던 사단장의 고문이 되면서 이러한 방어기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魏連歿가 사단장 고문이 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일면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실패한 삶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회에 복수를 했음에도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삶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폐병에 걸렸음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이러한 실패한 삶에 대한 분노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입가에는 이상야릇한 시신을 조롱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신체화'로 나타난 것이다.

주인공 魏連歿은 수 천년동안 지속된 봉건사회의 현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대항하고자 했으나 결국 그 현실을 과감하게 타파하지 못하고 비극적 운명으로 끝난 고독한 지식인의 전형이었다. 이는 작자 魯迅이 당시 사회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픈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며, 자신의 고독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3. 이항 대립에 의한 방어기제 - 이상적 사회로의 회귀욕망

魯迅의 작품 세계에서는 이항 대립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물들이 왜곡된 사회와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갈등적 요소들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때로는 이것이 어

곳나 절망하며 사회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자유와 억압,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항 대립에 의한 인물 내면의 갈등을 살펴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삶 속에서 빚어지는 방어기제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집착과 대리만족

작품 활동은 작가의 욕구 충족으로 “현실에서 부정된 욕구들이 공상에서 대리만족으로 나타난다.”<sup>26)</sup> 작가는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실천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쾌감을 얻게 된다. 즉 작가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자신의 비밀을 그 속에 집어넣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항상 의식 속에 있는 긴장에서 해방되려는 심리를 지니고 있다.

1919년 4월에 발표한 <孔乙己>는 비정상적인 봉건사회 속에서 폐쇄적인 구지식인의 정신적 약점을 폭로한 작품으로, 과거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여 몰락한 실패한 구지식인 孔乙己와 과거에 급제하여 권력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성공한 구지식인 丁舉人을 대립시켜 봉건적 사회의 모순과 봉건제도의 폐해를 폭로 비판하였다. 이 작품은 성공한 구지식인과 실패한 구지식인, 현실과 이상이라는 이항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대립적 구도가 잘 나타난 작품이다.

孔乙己가 주점에 오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그를 놀린다. 한 사람이 “孔乙己, 자네 얼굴에 또 상처 하나가 늘었군!”하며 말을 건넨다. 孔乙己는 상대하지 않고 술창 쪽을 보며 “두 잔만 따라 줘, 그리고 콩 한 접시”하고는 동전 9푼을 늘어 놓는다. 사람들은 다시 일부러 큰 소리로 “자네 분명히 남의 물건을 훔쳤지!”라고 소리친다. 孔乙己는 흘려보며 “뭐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마. 누명을 씌워서...” “누명이라고? 내가 그저께 이 눈으로 보았던 말이야. 자네가 何씨댁 책을 훔치고 매달려 얻어맞는 것을 말이야!” 그러면 孔乙己는 얼굴이 빨개지며 이마에 푸른 힘줄을 가락가락 세우며 항변한다.<sup>27)</sup>

26) 지그문트 프로이트, 마광수 편저, <창조적 작가와 백일몽>《심리주의 비평의 이해》(서울: 청하, 1987) p. 20.

겨우 9푼이라는 돈으로 술 두 잔과 안주 한 접시밖에 살 수 없는 孔乙己였음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불공평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한 쪽은 과거에 낙방하여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에서는 그것을 놀리며 즐거워함은 물론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비아냥거리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孔乙己는 억울하다는 듯 얼굴이 빨개지고 이마에 힘줄이 돋는 신체화의 방어기제로 나타난다. 그리고는 “책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느니……책을 훔치는 것은 자고로 독서인의 일인데 도둑이라 할 수 있겠는가?”<sup>28)</sup>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평생을 儒學과 經學만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학자가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몰락할 수 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지녔던 것이다.<sup>29)</sup>

또 사람들이 그에게 글을 아는 사람이 왜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느냐고 물으면 기가 죽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들과는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만만한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이시킨다. 그리고는 상대하려 하지 않는 咸亨酒店 사환인 “나”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글을 가르쳐줄 테니 익혀두어라. 이런 글자는 익혀두는 것이 좋아. 앞으로 주인이 되면 장부 적는데 필요할 테니까.”<sup>30)</sup>라고 하면서 억지로 글을 가르치는 것으로써 과거시험에 낙방한 독서인으로서의 열등감과 좌절감을 잊고자 하는 대체형성의 기제로 나타난다.

주인 역시 평상시 말투로 웃으며 “孔乙己, 자네 또 일 저질렀지?”라고 말하자 그는 이번에는 그다지 변명하지 않고 한 마디 “실없는 소리 마시오.”라고 말했다. “실없는 소리라니?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리를 부러뜨릴 리가 없지 않

27) 孔乙己一到店, 所有喝酒的人便都看着他笑, 有的叫道, “孔乙己, 你臉上又添上新傷疤了!” 他不回答, 對櫃裏說, “溫兩碗酒, 要一碟茴香豆。” 便排出九文大錢。他們又故意的高聲嚷道, “你一定又偷了人家的東西了!” 孔乙己睜大眼睛說, “你怎麼這樣惡空污人清白……” “什清白? 我前天親眼見你偷了何家的書, 吊着打。” 孔乙己便漲紅了臉, 額上的青筋條條綻出, 爭辯道。〔〈吶喊〉《全集》第1卷, p. 435.〕

28) 竊書不能算偷……竊書!……讀書人的事, 能算偷嗎? 「위 25)와 같음.」

29) 金那英, 〈魯迅의 前期小說에 나타난 人物形象 研究〉(상명대학교석사논문, 2001), p.74참조.

30) 我教給你, 記着! 這些字應該記着。將來做掌櫃的時候, 寫賬要用。 「위의 책, p. 436.」

은가?” 孔乙己는 나지막한 소리로 “넘어졌어, 넘어져서…” 그 눈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주인에게 애걸하고 있는 것 같았다.<sup>31)</sup>

어느 날 孔乙己는 丁舉人의 집에서 책을 훔치다 발각되어 죄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쓰고 밤새도록 얻어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수모를 당한다. 이것은 과거에 급제하여 권력을 지닌 丁舉人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책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낙방하여 몰락한 孔乙己에 대한 과도한 억압인 것이다. 독서인이 책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심히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孔乙己는 또 일을 저질러서 다리가 부러졌느냐는 咸亨酒店 주인의 질문에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내색도 없이 그저 넘어져 다쳤다고 얼버무리며 회피한다.

여기서 작가 魯迅은 孔乙己라는 인물을 통하여 과거급제로 인한 신분상승이라는 이상만을 추구하고 현실을 타개해 나가지 못하는 봉건지식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孔乙己>에서 작가가 애정을 가지고 그려 낸 인물은 물론 孔乙己이다. 비록 과거급제에 집착하여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는 인물이긴 하지만 魯迅은 이러한 실패한 봉건지식인의 삶을 통하여 봉건제도의 모순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봉건세력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대리만족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2) 회귀욕망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희망하는 대상을 채울 수 있기를 욕망한다. “아무 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다.”<sup>32)</sup> 즉 인간은 살아있는 한 항상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이다.

31) 掌櫃仍然同平常一樣，笑着對他說，“孔乙己，你又偷了東西了！”但他這回卻不十分分辯，單說了一句“不要取笑！”“取笑？要是不偷，怎麼會打斷腿？”孔乙己低聲辯道，“跌斷，跌，跌…”他的眼色，很像懇求掌櫃，不要再提。「위의 책, pp. 437-438.」

32) 차크 라강, 권영택 외 옮김, <욕망이론>(서울: 문예출판사, 2000), p. 19.

본 장에서는 계급적 봉건사회 속에서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착취와 무지하여 가진 것 없이 신음하는 민중 속에서 모든 인간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희망적 세계를 꿈꾸며 그 속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故郷〉은 閩土라는 인물을 통하여 봉건사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민중의 비극적인 현실과 농민의 일그러진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여기서 閩土와 '나'는 자신들의 미래인 아이들만큼은 달라진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머니가 형편을 묻자 그는 집에 불 일이 있어 내일은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직 점심 전이라 하여 손수 부엌에 나가 밥을 데워 먹으라고 권하였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와 나는 그의 슬픈 처지를 이야기하며 한숨을 지었다. 자식 부자에다 연속된 흉년, 가혹한 세금, 군벌과 비적, 관리, 지주 등이 마구잡이로 그를 괴롭혀 그를 바보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sup>33)</sup>

'나'가 20년 만에 閩土를 만난 뒤 그의 불행하게 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중 일부분이다. 어린 시절 '나'의 눈에 소영웅으로 비쳐졌던 閩土에게서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은 20년 동안의 가난 때문이었다. 그의 고난은 多産, 기근, 세금, 도적과 관리와 지주들의 괴롭힘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閩土의 처지를 보고 '나'와 어머니는 기가 막혔던 것이다. 봉건계급 제도에 의해 어릴 적 친구에게도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하게 변해버린 閩土를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에 한숨을 짓는다. 이렇게 한숨을 짓는 것은 잘못된 사회 현실에 대해 閩土를 대신하여 질타하는 상징화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 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신체화의 방어기제를 통해 해소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어머니는 이사를 가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추려서 모두 閩土에게 주고 가자고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은 필요 없게 된 물건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

33) 母親問他，知道他的家里事務忙，明天便得回去；又沒有吃過午飯，便叫他自己到廚下炒飯吃去。他出去了；母親和我都嘆息他的景況：多子，飢荒，苛稅，兵，匪，官，紳，都苦得他像一個木偶人了。「《全集》第1卷，p. 483.」

으로써 위안을 삼는 이타주의적 방어기제로 나타난다.

나는 생각했다. 나와 閨土는 결국 이처럼 거리가 멀어져 버렸지만 우리 후손들은 같은 기분이라. 宏牙는 지금 水生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들이 나같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 그러나 나는 또 그들이 헤어지지 않으려는 나처럼 고달픈 방랑생활을 하는 것도, 또 閨土처럼 괴로움에 마비된 생활을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생활이 있어야 한다.<sup>34)</sup>

여기서 작자는 ‘나’와 閨土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宏兒와 水生에게 미래를 걸고 있다. 이는 “미래는 과거보다 발전하고, 젊은이는 노인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魯迅의 進化論的 사상이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閨土가 향료와 촛대를 선택했을 때 ‘나’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서 비웃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바라는 희망이라는 것도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초자아가 형성된다.

魯迅은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형성되는 사회, 즉 주어진 일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욕망했을 것이다. 상호 이해는 “한 번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생겨나서 점진적으로 의견일치에 도달하게 하는 무수한 교환들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35)</sup> 작가는 작중인물들을 통해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타주의적 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이 사는 참 모습의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을 꿈꾸었던 것이다. 魯迅이 꿈꾸고 희망한 세상은 가진 것이 없고 무지하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이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이다.

34) 我想：我竟與閨土隔絕到這地步了，但我們的後輩還是一氣，宏兒不是正在想念水生么。我希望他們不再像我，又大家隔膜起來……然而我又不願意他們因為要一氣，都如我的辛苦展轉而生活，也不願意他們都像閨土的辛苦麻木而生活，也不願意都像別人的辛苦恹恹而生活。他們應該有新的生活，爲我們所未經生活過的。 「위의 책, p. 485.」

35) JOHN W. KINCH, 이동원 譯, 《사회심리학》(서울: 하나의학사, 1992), pp. 73-74.



#### 4. 結論

魯迅의 소설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작중인물들 대부분이 잘못된 사회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작자가 인물들의 목소리를 빌어 행한 몸짓은 제대로 저항의 방법을 모색해 내지 못함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들은 부당한 현실에서 오는 내면의 갈등을 적절한 방어기제를 통해 해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내면의 갈등을 적절히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물들은 비교적 건강한 정신<sup>36)</sup>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다.

魯迅은 자신이 처했던 낙후되고 모순된 사회와 시대에 반하는 반골기질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작품을 통해 부당한 사회체제에 정면으로 맞서 몸으로 싸워 온 저항 작가라고 하기에는 다소 과장된 평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결론을 내려 본다. 저항 작가라면 작품을 통하여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그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통해 사회체제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 항거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魯迅의 작품에서는 기득권세력의 억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부조리한 체제에 대해 서릿발 같은 목소리로 시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항거한 모습은 정신분석학적 연구 결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魯迅은 문단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고난에 직면했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현대문학을 선도했던 작가 魯迅은 작품 활동을 통하여 부조리한 시대와 사회에 대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항거하지 못한 점에 대한 콤플렉스를 작품 속 인물들의 적절한 심리적 방어기제를 통해 해소시키려 했고 개인과 사회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정신적 방어기제를 통해 비교적 잘 융화시킬 수 있었

36) 프로이드는 건강한 성격을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 간의 적절한 중재역할을 하는 경우, 즉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면서 초자아를 충족시켜나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무의식적인 욕구와 충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내면적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 비교적 타당성 있는 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용어사용이 과연 현실적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 《參考文獻》

- 《魯迅全集》第1, 2卷, 上海, 人民文學出版社, 1973
- 王寧, 《文學與精神分析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丸山昇 著, 韓武熙 譯, 《魯迅評傳》, 서울, 일월서각, 1982
- 金那英, <魯迅의 前期小說에 나타난 人物形象 研究>,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1
- 朴志英, <魯迅《吶喊》主要人物形象研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4
- 鄭文熙, <魯迅의 創作意識과 人物形象에 대한 研究>,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2
- 김유진, 《일상생활과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0
- 프로이드 著, 박성수·한승완 譯, 《정신분석학 개요》, 서울, 열린책들, 2004
- 프로이드 著, 장정진 譯, 《창조적 작가와 몽상》, 서울, 열린책들, 1996
- I.A.젤리·D.J.지글러 著, 이훈구 譯,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2003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3
- 지그문트 프로이드 著, 마광수 편저, 《심리주의 비평의 이해》, 서울, 청하, 1987
- 최상윤, 《한국 자의식 소설 연구》, 서울, 세종출판사, 2002
- 자크 라캉 著, 권영택 외 옮김, 《욕망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2000
- JOHN W.KINCH 著, 이동원 譯, 《사회심리학》, 서울, 하나의학사, 1992

### 《中文提要》

弗洛伊德主張精神分析學說以來, 這一學說從治療精神病的領域, 到文學以及藝術方面擴大範圍起來了。早在他治療精神病患者時, 就開始實踐無意識說了。他把人的精神領域分爲三個層次: 前意識、意識和無意識, 而無意識則是一個特殊的精神領域, 它具有自己的慾望衝動, 自己的

表現方式以及它特有的精神機制。

這種精神療法分析出病者心理中的無意識世界來，透過語言的表現，把握病根，而且通過文學作品，解決作者和讀者間的問題的方法進一步發展了。這樣精神分析學，分析作者和作中人物的心理，而到弗洛伊德的象徵，在多方面運用，糾明作品中的作者思想。

作者藝術行為類似幻想過程。現在的體驗使作者想起過去記憶來，而從過去記憶的所望衝動，總以藝術獲得滿足。藝術像幻想，童年生活的遊戲延長又代替。魯迅創作文學作品，還是作者回憶過去記憶，通過生活體驗的人生問題，在作品中以各種防禦機制形象化了。魯迅小說作中人物用適切的防禦機制，斬斷社會現實的葛藤。

本研究通過魯迅小說作中人物的環境與內在意識，在精神分析學方面糾明魯迅文學思想和作品世界有什麼關係。

**關鍵詞：**魯迅, 弗洛伊德, 精神分析學, 無意識說, 作中人物, 作品世界, 所望衝動, 防禦機制